

# 주술로 살인한 죄 참회 못해

##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6>

지난호에, '잘못하여 죽이게 되면 역시 잘못된 잘못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조야침)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 양나라 무제는 평소 습도 합두 대사를 믿고 존경하였다.

어느 날 관리를 보내 대사를 모셔 오게 한 뒤 대사를 기다리며 신하와 장기를 두고 있었다. 무제가 한 수를 놓으면서 "죽여라!" 하고 말했는데, 그때 마침 도착한 관리가 무제의 말을 듣고 대사를 배어버렸다. 무제가 장기를 다 두고 대사를 찾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폐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죽여라!' 하시기에 배었습니다."고 하였다. 무제가 듣고 기질을 하였다가 깨어나서 "대사께서 죽임을 당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가?"고 물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빈도가 전경에 사미였을 때 삼으로 죽음을 파다가 잘못해 지령이 한 마리를 상하게 하였는데, 그 지령이가 바로 지금의 무제이다. 그때 지령이를 죽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죽임을 당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했다. 무제는 비로소 인과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음을 깨닫고 감탄하였다 한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살생업을 짓는 동기와 결과에 따른 살죄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살죄가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원문  
'비다라(毗陀羅) 죽은 시체를 일으켜서 살인하게 하는 주법'이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

것을 '비다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반비다라(半毗陀羅)'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들에게 쇠수레를 만든 뒤에 다시 쇠사람을 만들어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쇠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물로 씻고 옷을 입혀 쇠사람의 손에 칼을 잡게 하고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내가 아무

같이 불이 없어질 때 저 목숨도 따라 사라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중에 소통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둔 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상을 만들고, 이어서 다시 뽑아 없애버리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며 말하되 '이 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 목숨도 또한 없어지거라. 만약 상이 없어질 때 저 목숨이 따라 없어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중에 소통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두고, 찰이나 바늘로 못이나 머리를 찔렀다 다시 뽑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며 말하되, '이렇게 침을 뽑아낼 때 목숨도 따라서 뽑혀버려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숨을 끊는 것'이다. 혹은 갖가지 주문으로 죽이는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강의  
이 단락에서는 주술로 명을 끊는 세 가지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런 것을 '열도살(斷殺)'이라 하는데 모두 비다라의 종류이지만, 현재에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밖에도 작법을 하고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밖에는 달빛이 없어서 더욱 캄캄하고 어두워져 사물 작법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해인총림 올원장>

# "말과 행동 진실해야 신뢰 받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화엄경에 '신위공덕모(信功功德母) 즉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조건은 신뢰와 예절입니다. 친구·부부사이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신뢰와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이 하나일 때 나옵니다.

옛 우리 스승님들께 들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북쪽 추운 지방에는 음력 4월에 얼음이 얼고 10월에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4~5명이 있었는데 터가 좋고 전신사가 모셔져 있어 밭짓 장소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곳에는 언젠가부터 무언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름에 겨울 한철을 나는 데 필요한 쌀나무, 양식, 김장을 미리 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걸 먹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인 셈입니다. 이는 먼저 다녀간 사람과 후에 온 사람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에는

식이와 그 선지식이 멀리 있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지식 아니겠습니까? 선지식은 가장 직장 등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선지식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지식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식을 인연에 불확합니다. 특정인을 선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51번째로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은 "착하다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가 약했다면 이곳에 다시 오지 못했을 것이다"고 선재동자의 그동안 구도행을 칭찬했습니다.

'신뢰가 공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지평선 너머>라는 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에 남는 구절만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입니다.

"만리로 떠나는 날 아침 / 아내와 자식을 마음놓고 맡기고 갈 그 사람을 당신 그대는 가졌는가 /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 그래도 저 사람을 당신을 가졌는가 / 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 배를 서로 사랑하며 /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 불의는 사형집행이 우리를 다 죽여도 / 저 사람만은 부디 살려달라고 일러달라 그 사람을 당신을 가졌는가..."

만일 이 같은 사람을 가졌다면 소중한 보배를 가진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도 믿지 못하니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낳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법문은 새로 피어나는 꽃한테 들으십시오.

정리=현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 오계상경-10

(殺罪)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고, 비인(非人)이나 축생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둘째, 비인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셋째, 축생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나 비인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넷째, 대상을 정하지 않았는데

## 흠 파다 지령이 살상한 합두대사 훗날 양무제에 앙갚음 죽음 당해

몸밖에 시체를 구하여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 시체를 일어나게 하고는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손에 칼을 쥐여 죽여 죽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 때나 이 비다라 주법을 한다'고 하며 주문을 외워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의 보호를 받거나, 대주사(大呪師)가 구원하여 해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급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이런

게를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 하여 이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들에게 보호받거나, 주사(呪師)가 구해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이 '반비다라로서 죽이는 것'이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밖에 소통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가운데 쌓아 놓고 불로 태운 뒤 곧 물 속에 넣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되, '불이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 '빈' 대학 불교학 연구 주도

오스트리아의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곳은 빈 대학이다. 여기에는 티베트학과 불교학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국내 불교학계에 잘 알려진 타우셔(H. Tauscher), 초이치(F. Choch), 미스라(K.N. Mishra)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타우셔 교수는 기존의 유럽 불교학계에서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를 고집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저서 <부처님의 반야사상>을 통해 유식학과 여래장 분야에 있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티베트 독립' '달라이 라마'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티베트 장경을 토대로 한 티베트 불교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타우셔 교수는 이러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빈 대학 '명상반'을 운영하는 등 정·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평소에도 삼매경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감명받았다"며 "간단 명료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점

## 세계의 불교학 <16> 오스트리아 ② <끝>

이 인상적이었다"는 후학들의 말에서, 타우셔 교수가 명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이치 교수는 오스트리아 불자들의 독서 일순위인 <붓다>를 펴낸 학자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문헌 해석과 고증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일종의 '부처님의 전기'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초이치 교수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 기원을 탐욕에서 찾아내는 등 단순 '전기'를 넘어, 불교의 핵심 사상을 통해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는 이 책에서 '태초에 모든 신들은 미추나 빈부, 지위의 고하 따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였는데, '신성한 버터처럼 보이고 최고의 벌꿀 같은 맛이 나는 땅'을 탐내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탐욕은 노예를 부르고, 그 노예들은 맹목과 무지와 이기주의를 부

추겨 끝내는 파멸적인 자기 이익 쟁기로 내달려 되며, 이는 가장 고귀한 통치수단인 '관용'이 아닌 강제와 폭압의 통치방법을 자행토록 만든다는 것이다.

초방교수인 미스라 교수 역시 마명(1~2세기·인도) 스님의 저서를 번역하고 또한 불교 계승집

## 타우셔 교수 티베트불교 권위자 명성 불교교양대·명상수련원 설립도 활발

을 펴내고, 이를 강의 텍스트로 사용하는 등 불교학 연구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스라 교수가 불교학에 입문한 것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요가와 명상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가,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불교학에 매료됐다. 빈 대학에서 학생들과 선 수행을 실천해 온 그는 1991년 '불교



◇공동연구 주제를 토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불교학자들.

연구'라는 모임을 조직한 뒤 다양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빈 대학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모임은 현재 오스트리아의 불자들의 수행처로 각광받고 있다. 사실 이들 교수들의 연구 및 포교 활동의 뿌리에는 니아나티로카(Nyanatiloka) 스님이 있다. 스님은 오스트리아 학계에서 불교학의 관심을 태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 근처에서 태어난 그는 미얀마에서 출가한 후 유럽 전역을 돌며 포교에 열중했다. 스님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오스트리아 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 학자들과 사귀며 그들의 불성을 일깨웠던 것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불교학계는 대학 내의 연구소 설립, 연구 방법론 확립 등 '불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재가불자들을 위한 불교 대학을 설립하고 또 설립 자료와 명상의 장소 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buddhopia.com)

#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서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



- ◎ 소재  
· 팔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기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 그 위에 유리보따
-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45cm×45c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34-9490, 334-9491

야간: (0342) 706-3060

##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환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의 영향이 완전히 차나오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만다라 걸어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인간의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태일대사 달마작품 (대한민국 통일시대대진 입상 및 대한민국 통일시대대진 제11회 특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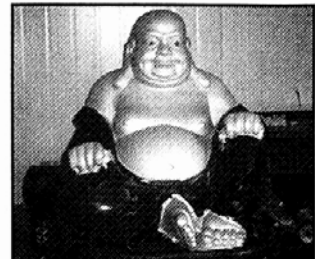
달마심기비전 도법으로 새태양의 運氣로 소원을 이루는 상서로운 달마조사를 모시면 어느곳이든 흥한 터, 모터, 집터, 사업사찰, 사무실, 수맥차단 및, 사업장, 공부방, 초상, 상문, 이사, 개축, 개업, 사업, 학업 일체 마장소멸 등 흉가라도 길흉화복으로 모든 재앙을 차단하는 신출귀몰한 후천달마 비전도법과 태양의 氣가 담긴 달마도를 소장하시어 건강, 장수, 부귀영화하시고 소원성취하시며 삼재탈락 소멸하시어.

# 새천년 대운맞이 제57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 동참하시어 사명자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경신법회 새천년의 진지 창조이래 하늘의 순연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연을 하늘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는 天符經 地符經 人符經 眞각방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을 최초로 만 천하에 공개하노라.

새천년부터 천체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운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명기도를 양력 5월 1일과 2일 (음력 3월 27일, 28일) 자시와 오시에 360여개의 중생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과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등원운 하탈지리의 도통군과 갖게될 얻어 준은 100에 하은 120세의 천안통 속명통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가 러진 법도와 효종사상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법도와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잠시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과 영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열대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되소서.

※ 天符經 地符經 人符經 眞각방 眞각방 만유의 삼나만상이 만법귀일하는 신륵기묘한 대비밀장에 도전하시어 인류종교의 참뜻과 사상으로 태어난 도리를 다하여 중생을 제도하소서(이 소식을 알아보으십니까?) 신 선성, 자성, 약성



약사선원에 최초로 모셔진 초조선종 동토달마 조사보살상

- 임 제: 양력 5월 1일 밤10시-2일 亥時까지 양일
- 회 비: 일금 10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 온라인: 동협 029-01-167866 광대일 선착
- 전 화: 02) 821-6622/야 923-3110/ 016) 239-3110 (1호선 노랑면역 하역, 2호선 신림역면역구, 버스 85,25,95,26,303,26,142 오지원고개 하역)

雄祖院. 진인경신도통회 天龍 眞人 泰日法師  
대한불교 약사선원